

양성빈 “혁신도시 연관 기관·기업 유치률”

도의회 예결특위 정책질의

- 최명철 “AI 방역으로 막아라”
- 김대중 “농업보조금 투명관리”
- 허남주 “지역인재 채용 높여야”
- 이현숙 “환경문제 도가 나서야”
- 최인정 “공공시설 안전 계획을”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4일 전북도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김승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양성빈 위원(장수)은 혁신도시 시증2와 관련해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유관 기관, 기업 등이 도내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며 이와 함께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정호운 부위원장(전주1)은 내년도 예산에 마이스산업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컨벤션센터 건립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최명철 위원(전주4)은 AI방역에 따른 예산이 예방 및 사후 살처분 예산을 포함하여 1,3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후관리보다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관리를 당부했다.

백경태 위원(무주)은 무주태권도공원 및 SOC관련 예산 등 국가예산이 얼마만큼 확보



본회의는 열렸으나 결국엔 정회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11시께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 12시께 개의를 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협의후 정회를 선포했다.

보되었는지 물으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고 예산안 설명서 작성에 있어 산출기초 보장 등 꼼꼼한 설명서 작성을 주문했다.

김대중 위원(익산)은 한해 수천억원이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 담보권 설정을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담보권 설정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정해 담보권을 설정하여 농업단체 및 농민들이 농업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혁신

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현재 18%정도(목표 30%)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인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여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전마을 등 공간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질타하며 환경부나 시군 등에 떠 넘기지 말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조사,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일 위원(순창) 위원장은 전국 귀농 귀촌 보조금사업 샘플링 조사시 부당한 보조금 지원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인정 부위원장(군산3)은 공공시설의 내진설계법제화 시행 후 국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최명길 의원직 박탈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지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뉴스

이용호 의원, “순창 방축 입체교차로 변경 예산 확정”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순창 방축 입체교차로 변경 설치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도 24호선(담양~순창) 확장공사 총사업비를 증액하면서 국비 10억 6,000만원이 반영됐고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9년 동안 끌어왔던 방축교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정체를 해소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지난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업을 재심의의 통해 증액시킨 것이다. 가능성이 낮았던 만큼 더 치열하게 노력했고, 보람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최영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교육청과 소통을”

전북도 예산안 심사… 양성빈 “고향기부제 도입 위해 전북도의 관심 필요”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전북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양성빈 위원(장수)은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관심을 요구하며 시군, 향우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와 법 제정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민중당 비례대표)은 도청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하이시습의 날 명사 특강’, ‘책 읽는 전북, 독서토론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은

직원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운영방식, 만족도 등 직원들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규 위원(익산4)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학원가가 없는 지역에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신장 지원 프로그램이나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과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전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전라북도교육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소통으로 전북도 교육정책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명철 위원(전주4)은 자율방범대 영호 남교류사업 등 전북도의 영호남 교류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경북하고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른 시도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호운 위원(전주1)은 직원 복직 및 복리후생 관련 사업 중 일부사업의 증액 사유를 물으며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맞물려 전북도 역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문제 및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공무원 복리후생 예산 증액은 다시 고려해 볼 문제라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의원, “청년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 5일,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가진 전주효자청소년문화의집 초청 특강에서 “청년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는 등 많은 우려폭절을 거치고 이제 청년세대에 진입하는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인 만큼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비해 N포세대, 헬조선 등으로 표현되는 현재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사회 전반적인 담론들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실제 해결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청년 세대에서도 건강 소득 등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래세대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은 청년이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도 정치 및 사회적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군관광사슴지